

표 8은 아리수의 지역 및 연도별 과실풍성을 조사한 결과로 평창 지역의 과실풍성은 2016년 첫 수확하여 조사한 결과이다. 아리수 품종의 지역별 과중은 올해 첫 수확한 평창에서 315g으로 가장 컸고 춘천이 293.7g, 양양이 308g이었으며 L/D 비율은 0.88~0.89%로 지역 간의 차이가 없었고, 당도는 평창이 15°Bx로 가장 높았고 양양이 12.9°Bx로 가장 낮았다. 이는 양분의 전이와 축적이 이루어지는 야간에 고온이 되면 호흡에 의한 에너지 소모가 급격하게 이루어져 과실 내 동화물질의 축적이 감소되어 산간부보다는 평야부에서 상대적으로 야간에 고온이 지속되기 때문에 당도가 낮아진다는 보고(최 등, 2001)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. 경도와 착색율 및 적색도는 썬머킹과 같은 경향으로 표고가 높아질수록 경도가 증가하였고 착색율과 적색도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. 아리수는 추석 선물용으로 재배되고 있는 품종중 하나로 과피의 착색율이 춘천과 양양지역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고랭지인 평창지역에서는 전 표면이 착색되어 상품성이 높았으며 적색도도 높았다.

표 8. 아리수의 지역 및 연도별 과실풍성

| 지역 | 조사 년도 | 과 중 (g) | L/D | 당 도 (°Bx) | 산 도 (%) | 경 도 (kg/5mØ) | 착색율 (%) | 적색도 (Hunter a 값)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춘천 | '14 | 307 | 0.9 | 13.2 | 0.26 | 3.1 | - | - |
| | '15 | 278 | 0.91 | 13.7 | 0.33 | 4.0 | 89.2 | 33.7 |
| | '16 | 296 | 0.86 | 16.5 | 0.47 | 2.9 | 87.3 | 33.8 |
| | 평균 | 293.7 | 0.89 | 14.5 | 0.35 | 3.3 | 88.3 | 33.8 |
| 양양 | '14 | 312 | 0.9 | 12.8 | 0.26 | 2.9 | - | - |
| | '15 | 318 | 0.9 | 12.6 | 0.22 | 3.5 | 73.3 | 31.8 |
| | '16 | 294 | 0.86 | 13.2 | 0.32 | 2.7 | 100 | 35.4 |
| | 평균 | 308.0 | 0.88 | 12.9 | 0.27 | 3.0 | 86.7 | 33.6 |
| 평창 | '16 | 315 | 0.89 | 15.0 | 0.42 | 3.5 | 100 | 36.8 |

표 9는 과피가 녹색인 중생종 품종인 그린볼의 지역별 과실풍성을 조사한 결과로 과중은 지역 간 큰 차이가 없이 322~329g이었으며 L/D비율은 춘천이 양양에 비해 다소 높은 0.9%가 나왔으며 당도는 춘천이 14.1°Bx로 양양보다 높았고 경도도 같은 경향은 보였다. 이는 앞의 아리수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.